

담배는 커피처럼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그러나 담배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기에 단순한 기호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선 담배의 해로운 점을 열거해 보면 첫째,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흡연은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

둘째, 신문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바에서 근무했던 바텐더들의 흡연을 금지하는 실험에서 전·후의 호흡기의 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흡연금지가 실효를 거둔 후 바텐더의 59%가 가쁜 숨, 기침, 그리고 다른 이상 증세 등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한다. 폐의 역할 또한 개선되었다고 한다.

셋째,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 게다가 흡연연기는 자신보다 타인의 건강에 더 안좋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담배의 악영향은 미국의 대형담배업자들의 담배해독인정과 규제를 FDA에 일임하기로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TIME誌 Jun30.1997)

이것은 담배 광고의 옥외 금지, 담배갑의 경고문 강화, 흡연자들의 피해보상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담배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단순한 규제보다 담배를 대신하는 기호품을 발명해야 한다. 흡연자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불안과 우울, 습관적인 버릇 등에서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